

컴퓨터관련 發明審査基準 마련

自然法則 이용하면 保護받아

컴퓨터소프트웨어중 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의 원리에 의해 짜여진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特許權을 얻을 수 있게된다.

특허청은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마련, 컴퓨터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手順(프로그램의 구성방법)의 법적성이 자연법칙에 의한 것일 때는 특허로, 장치와 결합된 컴퓨터관련 발명은 장치발명으로 각각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발명을 구성하는 수단만의 집합중 일부가 자연법칙이 아닌 다른법칙을 이용했다고 해서 특허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발명을 구성하는 수단전체를 단위로해서 特許性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面 記事參照)

工業所有權 호혜주의 認定

바베이도스國 國民 商標出願時

特許廳은 바베이도스國 國民이 商標出願時 提出한 호혜증명서에 의거 特許法 第40條를 준용하는 商標法 第7條의 規定에 따라 바베이도스國 國民에 대하여 商標에 관한 權利를 認定(확인일자: 84. 9. 22)키로 했다.

知的소유권 認定촉구

金融·서비스부문 門戶개방도

리처드·워커 駐韓美大使는 韓美간의 敍역관계는 이제 단순한 商品交易의 차원을 넘어서 금융·서비스·컴퓨터등의 분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韓國은 지적소유권·저작권·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커大使는 또 현재 한국이 겪고있는 무역

상의 어려움은 「韓國이 세계 20위권의 주요 무역국으로 부상한데 따른 마찰」이라고 말하고 「韓國은 이러한 무역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커大使는 「美國과 韓國의 敍역관계는 安保 측면에서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면서 美國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레이건 행정부가 銅·스테인리스강제식기·참치 등에 대한 對韓 輸入규제압력을 물리쳤음을 들었다. 워커大使는 「韓美간의 무역마찰은 相互 조정과 대화를 통해 편견없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韓國이 세계에서 자유무역주의를 다져나가는 데 있어 美國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美 뉴저지 現地工場 준공

三星電子, 100% 단독투자

三星電子가 1백% 단독투자로 美國에 진출한 뉴저지공장이 12월 5일(현지시간) 준공식을 갖고 본격 稼動에 들어갔다.

美國경제중심지인 뉴욕부근에 소재한 이 공장은 삼성電子가 지난 82년 포르투갈공장에 이어 두번째로 진출한 해외공장으로 年間 컬러 TV 80만대와 전자레인지 40만대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삼성電子 鄭在恩사장, 柳炳賢 주미대사, 토머스·케인뉴저지주지사, 토머스·존슨 케미컬은행장, 美國교민등 韓美관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 삼성電子 뉴저지공장의 출범을 축하했다.

도입 「有名商標」製品 비싸

국산품과 質差異없어

해외의 유명상표를 도입, 비싼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와이셔츠·넥타이·양말·테니스靴의 품질이 국내자체상표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

며 오히려 국내 상표제품의 품질이 부분적으로 뛰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工業振興廳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입자유화의 확대로 해외의 상표 및 기술도입에 의한 국내 생산 해외유명상표제품이 대량유통, 소비자의 외제선호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음에 따라 정확한 품질정보의 제공을 위해 이들 4개품목에 대한 해외 유명상표제품과 국내 자체상표제품간의 품질비교평가를 실시했다. 그결과 거의 품질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靴를 제외한 3개 품목에서 상표도입제품의 가격이 국내상표제품보다 1.7~3.1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辨理士試驗 合格者 發表

李玩徽씨등 8名 合格

지난 10월 12일 特許廳 研修室에서 實施한 第21回 辨理士試驗(第2次) 合格者가 發表됐다. 第1次 合格者 12名중 8名이 第2次試驗 合格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合格者 名單 ◎

李玩徽 朴鍾吉 崔鍾王 鄭銀燮
崔翔鉉 金宗潤 趙龍植 宋晚鎬

工業所有權 세미나 가져

大韓辨理士會, 物質特許制度등

大韓辨理士會(회장 任石宰)가 주최한 工業소유권제도에 관한 세미나가 12월 12일 하오 2시 특허청 연수실에서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工所權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등이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本の 화학물질특허제도 도입전후의 문제점(金石中변리사)

▲상표의 통상사용권제도의 실제(韓圭桓변리사)

日, 對韓특허출원 擴大기미

韓·日 工所權세미나에서 밝혀져

韓·日양국의 工所權현황을 소개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키 위한 韓·日공업소유권세미나가 11월 23일 하오 호텔롯데에서 열렸다.

韓國공업소유권법학회(회장 張龍植)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韓·日양국의 증견변리사와 법학자등 工所權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韓國특허법 및 상표법에 관한 제규정과 운영의 실태, PCT출원, 日本의 특허업무電算化체획, 日本상표법등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日本참가자들은 컴퓨터와 유전자공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特許法上규정과 운영실태등을 집중 질의했다. 日本측의 이같은 관심은 최근 특허청에 의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심사기준제정과 관련, 日本이 첨단기술부문에서의 對韓출원확대 준비작업을 강화하고 있음을 간접 示唆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 T C提訴 내년 더 增加

「美의 不公正貿易慣行규제」세미나

「美國의 불공정무역관행 규제」세미나가 12월 3일 무역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무역협회 주최, 金明信 특허법률사무소 후원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ITC(美國국제무역위원회) 수석판사를 역임한 도널드 두발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美國변호사겸 변리사들이 강사로 참가, ITC에서의 특허권문제, 덤핑·상표권·저작권 및 부정경쟁에 관한 ITC조치, 외국회사입장에서본 ITC전략등 美國의 수입규제법규와 ITC절차 및 그 대응책을 소개했다.

이 세미나에서 도널드 두발변호사는 ITC가 취급하는 불공정행위에는 특허·상표·저작권의 권리침해를 비롯, 독점금지법위반, 허위광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〇